

ISSN 1599-7863

# 박물관사람들

2020년 봄 · 69호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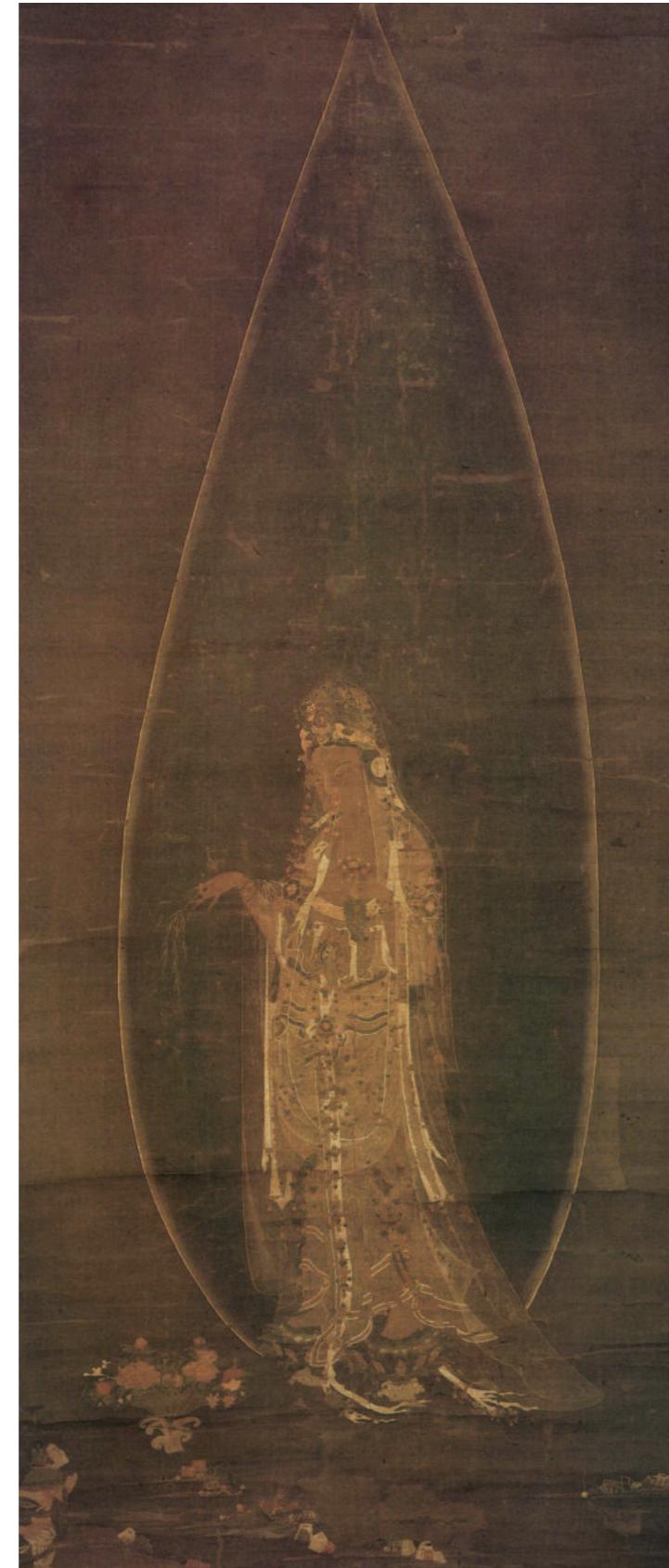
신명연. 흥백매도. 국립중앙박물관

## 2020년 봄 ■ 69호

### Contents

기획/나무	바람에 일렁이는 버들가지처럼	4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8
	너도 꽃, 나도 꽃	12
문화칼럼	델리, 인도이슬람 건축의 보고(寶庫)	16
회원마당	내색 없이 비껴 앉은 소소한 일상을 그리다	20 24
박물관 탐방	파리 박물관 방랑기	26
전시실 산책	“고을마다 고을의 소리로 살아가도록”	29
박물관회 소식	2020년 박물관회 특설강좌 안내 2020년 박물관회 테마강좌 안내 2020년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계획	32 34 36
숨은 전시	그대, 누구신가	37
국립중앙박물관회는		38

# 바람에 일렁이는 버들 가지처럼



혜허, 수월관음도, 선소지

다시, 수월관음도 앞에 섰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우러르고 있는 선재동자의 자태에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간절함을 봅니다. 선재동자의 간절한 물음을 따라가 봅니다. 관음보살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선재동자의 간절한 물음에 답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관음보살이 들고 있는 버들가지입니다.

고려 불화에서 버들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월관음도와 양류관음도에서 관음보살이 버들가지를 들고 있거나 병에 꽂아 두고 있는데, 미세한 바람에도 일렁이는 버들가지처럼 미천한 중생의 작은 소원이라도 들어주는 관음보살의 자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버드나무는 가지를 거꾸로 꽂아 놓아도 살 정도로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버드나무껍질이 천연진통제로 쓰이기도 했고, 현재는 아스피린을 만드는 원료로 쓰이며, 통증을 완화하는 약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버드나무는 벽사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월의 버드나무를 꺾어 문 위에 걸어 놓으면 사악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버들의 극치는 양류관음도라고 불리는 수월관음도에서 빛이 납니다. 물방울 형태의 광배를 둘렀다 하여 물방울수월관음도라고도 하고, 손에 버들가지를 들고 있다 하여 양류관음도라고도 합니다. 고려 불화의 백미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양류관음도의 근원을 따라가 보면, 『청관음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인도에서 역병이 유행했을 때 관음보살이 나타나 ‘버들가지’와 ‘정수’를 손에 들고 병마를 없애는 주문을 외워 가르치는 내용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혜허, 수월관음도 부분



서구방, 수월관음도 부분, 선오쿠박고관

다른 수월관음도가 바위 위에 반가좌한 모습과 달리, 양류관음도는 연잎이 띠워져 있는 물결 위에 연화좌를 딛고 벼들잎 형태의 광배 안에서 있는 모습입니다. 농익은 녹색으로 잔잔하게 표현된 벼들잎 형태의 광배 안에서 오른손으로 휘늘어진 벼들가지를 들고, 원손엔 정병을 들고 일어서서 선재동자를 대하고 있습니다. 고고한 선으로 빛나고 있는 벼들잎 광배는 눈이 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벼들잎이 물 위에 떠 있는 형상은 물가의 벼드나무를 연상케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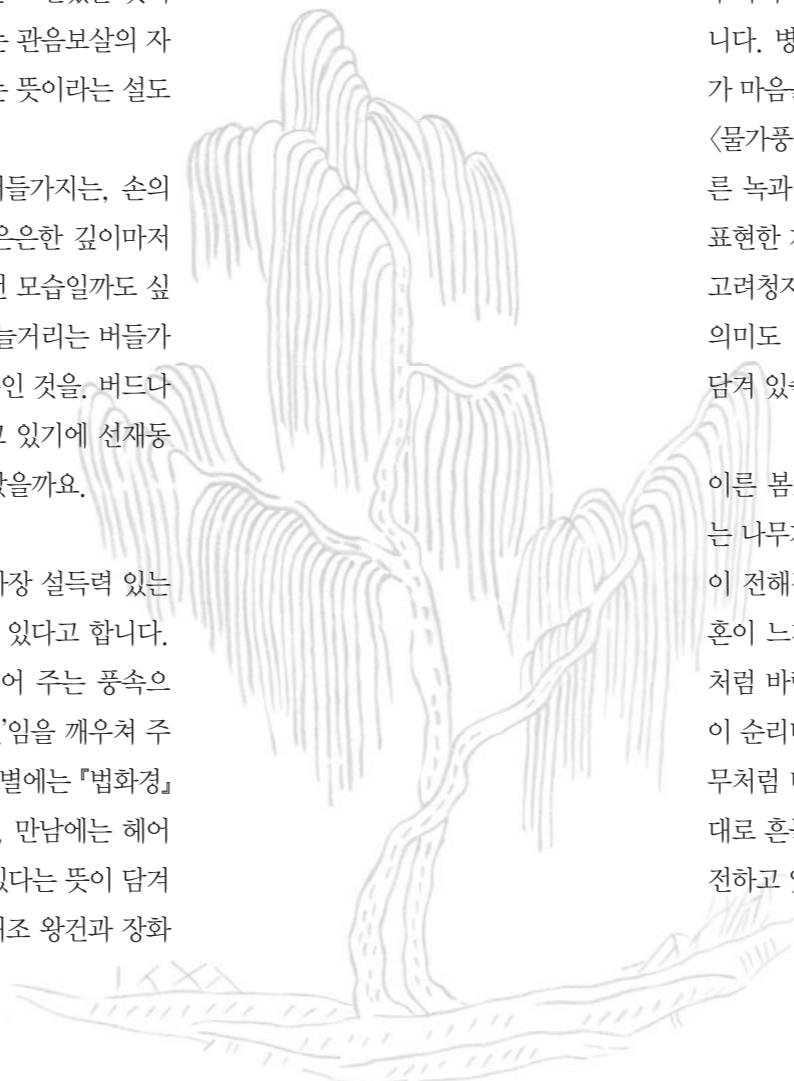
관음보살은 왜 벼들가지를 들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5세기 때 중국에서 벼드나무껍질을 치료제로 썼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음보살이 중생의 고통을 없애준다는 뜻에서 벼들가지를 표현했을 것이라는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는 관음보살의 자비로움이 벼드나무가 바람에 나부끼는 것과 같다는 뜻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관음보살의 손에 잡은 듯 놓은 듯 걸쳐져 있는 벼들가지는, 손의 일부가 되어 욕심도 무게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은은한 깊이마저도 가볍게 느껴집니다. 다다를 수 없는 자유란 저런 모습일까요 싶습니다. 무게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정처 없이 하늘거리는 벼들가지처럼 자유로워야 하거늘. 그 모습이 자비요, 치유인 것을. 벼드나무는 이처럼 유연하면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기에 선재동자의 간절함에 답하는 치유의 연결고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관음보살이 벼드나무를 들고 있는 유래에 대해서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중국 당대에 성행한 ‘절양류’ 풍습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절양류’는 이별하는 사람에게 벼드나무 가지를 꺾어 주는 풍속으로, 관음보살은 이별의 의미가 ‘나아가 다시 만날 것’임을 깨우쳐 주기 위해 벼들가지를 꺾어 주었다는 설입니다. 이 이별에는 『법화경』에 나오는 ‘회자정리 거자필반會者定離 去者必返’ 즉, 만남에는 헤어짐이 정해져 있고, 떠남이 있으면 반드시 돌아옴이 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와 신덕왕후의 만남과 고려 태조 왕건과 장화



청자벼드나무무늬병. 국립중앙박물관



왕후의 만남에 대한 설화에 등장하는 벼들잎에도 이러한 벼드나무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표주박에 담은 물에 띠워 준 벼들잎은 결국 사랑의 끈이 되어 맺어지게 됩니다.

또한, 벼드나무의 뿌리는 물을 정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바위 위에 걸터앉아 반가좌를 한 관음보살의 오른편에는 벼들가지가 꽂힌 병이 놓여 있습니다. 매병에 꽂혀 있는 벼들가지는 감로수의 물을 깨끗이 하는 치유의 힘을 보여줍니다.

고려청자에서도 벼드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청자벼드나무무늬병〉은 벼드나무의 뿌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뿌리까지 그려져 있는 유일한 벼드나무 그림입니다. 병의 양면에 그려져 있는 벼드나무는 단순하지만 그 여운이 주는 운치가 마음을 머물게 하고, 그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물가풍경정병〉은 은입사로 표현한 벼드나무, 갈대, 오리 등의 물가풍경이 푸른 녹과 어우러져 고풍스럽습니다. 벼드나무의 유연함을 이보다 더 섬세하게 표현한 게 또 있을까요. 이 정병을 보고 있노라면 정화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고려청자 물병에 그려진 벼드나무무늬는 물을 정화한다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마음과 몸을 정화한다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른 봄, 물가에 샷노란 연둣빛으로 제일 먼저 봄을 알리는 나무가 벼드나무입니다. 봄의 기운을 일깨워주는 생명력이 전해집니다. 유유자적 하늘거리는 모습에서 자유로운 영혼이 느껴집니다. 어쩌면, 인생을 쉽게 사는 방법은 벼드나무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순리니까요. ‘자연’스럽다는 것은 산들바람에도 일렁이는 벼드나무처럼 바람에 온몸을 맡기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바람이 나부끼는 대로 흔들리는 벼드나무가 물 흐르는 대로 순리대로 살라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강현자 회원



물가풍경무늬정병. 국립중앙박물관

# 나 무 도 아 닌 것 이 풀 도 아 닌 것 이



청자죽순모양주전자.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으로 오를 때는 두 길 중 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 동그란 꽃 화분이 있는 계단 길과 대나무 화분이 있는 빗면 길. 어느 봄비 오던 날에 대나무 길에서 지인이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줬다. 여기 죽순이 있다고. 식용 죽순이 아닌 살아 있는 죽순을 서울에서 보다니. 아무리 화분에 사는 대나무라도 죽순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데 그 사실을 그제야 처음 인식했던 거다.

지구상에서 생장속도가 가장 빠른 식물이 대나무라더니 비 내리는 날 귀갓 길에 죽순이 빼죽 나와 있는 것을 눈여겨보고 다음 날 그 화분을 다시 찾아 확인해보니 그 자리에는 벌써 끄트머리에서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하는, 껌질이 덜 벗겨진 어린 대나무가 서 있었다. 그 이후로 비 오는 날에는 박물관 들어가는 길과 나오는 길에 죽순이 얼마나 자랐는지도 확인한다. 대나무가 1시간 동안 자라는 키는 소나무의 30년치 길이 생장량이라고 한다. 죽순이 돋기 시작해서 45일 내외로 모든 생장을 마치고 평생 푸르게 사는 대나무는 장수와 더불어 왕성한 생명력의 상징으로 부족함이 없는 식물이다.

박물관 안에도 죽순이 있다. 통통하고 예쁘게 생긴 죽순 모양 청자 주전자이다. 잎맥이 정교하게 표현된 죽순 껌질은 한 장이 펴져 있으면 그 옆의 것은 끄트머리가 젖혀져 있다. 대나무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붙인 부리와 손잡이를 자세히 보면 곧 곁가지가 돌아 몇 시간 후엔 잎사귀가 돋을 것 같다. 무엇보다도 완벽하게 구현된 청자의 비색이 푸르른 대나무 이미지와 맞아떨어진다. 죽순 순箇자와 자손 손손 자의 중국어 발음이 같아 죽순은 손자를 의미한다고 한다. 또한 엄동설한에 죽순이 먹고 싶었던 아픈 어머니를 위해 눈물을 흘려 죽순을 키워낸 맹종의 고사 덕에 효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 주전자 주인은 그저 죽순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귀한 손자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주전자

를 주문했을지도, 아니면 바라던 손자가 생겨 축하 받거나 효를 다하겠다는 의미의 선물로 주전자를 받았을지도 모른다. 여하튼 이 주전자는 불로장생하는 신선의 음료를 담아야 할 것처럼 생명력과 활기가 충만해 보이니 주인장은 대만족이었겠다.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라고 오우가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대나무는 식물학에서 정의하는 나무는 아니지만 선사시대부터 오랜 세월 동안 나무의 역할을 넘어서 그 이상의 역할까지도 해왔다. 식용으로 쓰이는 죽순부터 시작하여 다 자라고 나면 건축자재와 온갖 생활용품의 소재로, 무기와 연장으로, 글을 적는 죽간과 피리 같은 악기까지 쓰임새가 다양한 데다가 키우기 쉽고 빨리 자라기까지 하니 전근대시대엔 최고의 소재 중 하나였을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대나무는 실용성을 넘어서 효와 정절, 장수, 절개, 벽사, 축원 등 온갖 좋은 것들에 대한 상징이면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인 “군자”의 상징으로 의인화될 정도로 사랑 받아왔다. 그리고 그만큼 많은 예술 작품들의 소재가 되었다.

중국에서는 당대唐代에 대나무가 그림의 소재로 자리잡고 북송대北宋代가 되면 새나 꽃 등 다른 소재들과 함께 그려지던 묵죽화墨竹畫가 독립된 화목으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송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고려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고려는 고사하고 조선 전기 작품들도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어서 아



백자청화매화새대나무무늬항아리. 국립중앙박물관

쉽다. 그나마 조선의 것은 몇 안 되게 남아 있는 청화백자에서 찾아볼 수는 있다.

국보 170호인 <매화새대나무무늬항아리>는 조선 전기에 제작된 청화백자이다. 새 두 마리가 매화 가지에 앉아 서로 바라보고 있고 그 밑에는 국화가 피어 있는 앞면 모습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문득 그 항아리 이름엔 “대나무”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 항아리의 뒷면엔 조선 전기의 대나무 그림이 있다. 앞면의 꽃과 새는 장식적이고 화려한 반면에 뒷면의 대나무는 한 점의 완성된 문인화 같아서 앞의 그림 분위기와 영 다르다. 대나무 잎 부분을 보면 붓놀림이 매우 빨랐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 덕에 그림이 생기 있어 보인다. 이 당시 유행했던 목죽화도 이런 분위기였을까? 몇 안 되지만 15세기에 만들어진 다른 청화백자도 찾아보았다. 15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대나무는 매화나 소나무와 같은 면에 함께 그려져 있고 화풍도 장식적이다. 그에 비해 15세기 후반 것들은 대나무를 다른 면에 따로 그리면서도 회화적이다. 혹시나 조선에서 목죽화의 온전한 독립은 이때쯤이었던 것 아닌가 마음대로 생각해본다.



이정, 설죽, 국립중앙박물관

도자기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조선 중기 이후 묵죽화를 찾 아보다가 유난히 눈에 띄어서 그린 이를 찾아보면 탄은灘 隱 이정李霆의 작품이었던 적이 많았다. 일단 그는 대나무 를 많이 그렸고 그 덕에 남아 있는 작품도 제법 많다. 더 알고 보니 그는 명종 연간에 종친으로 태어나 병자호란 이전 73세의 나이로 별세할 때까지 평생 대나무를 그리며 조선의 묵죽도 양식을 확립시켰고 당대는 물론 후대, 아니 조선 말까지도 회자되었던 조선 최고의 대나무 화가였다. 임금부터 사대부까지 모두 그의 그림을 좋아했으며 중국 사신에게 줄 선물로도 그만이었다고 한다. 의외로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도 있는데, 바로 5만원권 지폐 뒷면 어몽룡의 묵매화와 함께 새겨져 있는 대나무 그림이 바로 그의 작품이다.

전문가의 글에서 그의 작품들에 유독 마음이 끌렸던 이유 를 찾아냈다. 대나무의 특징을 극명하게 부각시키는 화면 구성과 대비를 중시하는 조형감각, 서예성과 회화성의 조

화, 절제되고 응축된 기세의 표현. 앞의 두 가지 요소 덕에 그림이 매우 극적으로 느껴졌던 것이고, 아무리 묵죽도 가 서예에 기반을 둔 문인화라지만 실물을 관찰하여 회화적인 면과 조화시켰기에 따분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그의 인격과 정서에서 나오는 기세가 작품에 녹아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자면 그가 그린 풍죽은 단순히 바람에 맷잎이 날리는 식물 대나무가 아니라 온몸으로 세파를 견뎌내는, 강한 의지를 가진 하나의 생명체 같고, 설죽雪竹은 그 저 눈이 포근하게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눈의 온도와 그 무게를 애써 견뎌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조선 중기에 전성기를 구가했던 묵죽화는 풍속화와 진경 시대를 맞이하면서 주류에서 잠시 멀어졌다. 그런 상황에 서 강세황은 애써 문인화로서의 대나무를 다시 주류로 끌어올렸고 그의 작품세계가 완성된 노년에 그에게서 묵죽을 배운 청년이 당대에 시, 서, 화 3절로 유명했던 자하 紫霞 신위申緯이다. 마침 그의 탄생 250주년 기념 특별전

덕에 그의 글과 글씨와 그림 여러 점을 전시실에서 직접 볼 수 있었다. 신위의 묵죽에선 유려한 곡선이 많이 보이고 전반적으로 지적이면서도 우아하다. 그의 온화하면서도 호탕한 성품이 반영된 것일까? 대쪽 같은 성품이었던 이정이 그린 강인한 묵죽과 비교해보게 된다. 물론 두 사람이 살았던 환경이 다르고 200여 년의 시간차가 있으니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아무래도 신위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대나무가 상징하는 여러 의미보다는 그 아름다움과 묵죽을 그리는 화가의 심상과 감성이 더 중요해진 것 같다. 같은 시기 추사 김정희가 문자향文字香과 서권기 書卷氣를 강조하며 예단을 장악했지만 결국 그의 제자들마저도 이념보다는 자신의 감성에 충실한 길을 걸었던 것을 보면, 말기로 치닫는 시대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보다. 대나무는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 살고 있을 뿐인데 그것을 보고, 느끼고, 만들고, 그리는 사람들의 심상은 계속해서 변해간다. ●

서유미 회원



신위, 묵죽팔폭병  
고려대학교박물관

# 너도 꽃, 나도 꽃



신명연. 흥백매도. 국립중앙박물관

살구꽃이 필 때, 복숭아꽃이 필 때..., 서쪽 연못에 연꽃이 필 때, 국화꽃이 필 때..., 또 화병에 꽂아놓은 매화꽃이 필 때 모인다.

1790년대 한양 명례방(지금의 명동)에 살던 정약용을 중심으로 당대 엘리트 관료 15명이 문예 창작 모임을 만듭니다. 만나기로 약정한 날들이 위와 같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의 옷이 꽃을 스치지 않게 굽은 대나무로 세운 화단의 울타리, 죽란. 이를 모임의 이름으로 삼은 죽란시사竹欄詩社에 걸맞은 규약입니다. 피고 지는 꽃과 함께 계절의 정취에 흡뻑 빠져 든 30대의 다산과 동년배인 회원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선비들의 꽃 사랑은 극진합니다. 꽃과 나무 이름을 빌리거나 이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의 구절을 따와서 집 이름을 짓습니다. 또는 자신의 집을 화암花庵이나 백화현百花軒이라 불렀습니다. 꽃을 지나치게 사랑한 이를 화벽花癖이 있다고 하고, 꽃에 미치다시피 한 경우에는 화치花痴라고 했습니다.

신숙주의 손자인 중종 때 재상 신용개(1463~1519)의 유별난 사랑은 무엇이라 할까요. 귀한 손님이 여덟 분 오실 터이니 주찬을 준비하라 부인에게 이른 그는 날이 저물고 달이 높이 떠오르자 술상을 차리라 재촉합니다. 밝고 맑은 달빛에 물든 여덟 화분의 국화를 귀한 손님이라 가리키며 늦도록 은잔에 술을 부어 권하거나 마시거나 하였답니다.

15세기 문인이자 세종의 이모부인 강희안(1419~1464)은 화훼에 대한 실용서를 쓰기에 이릅니다. 16종의 식물과 괴석에 대해 기술한 『양화소록 養花小錄』은 송대와 원대의 문헌을 자주 인용하나 그대로 따르지 않고 직접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꽃을 빨리 피게 하는 법, 화분을 배열하는 법, 종자나 뿌리를 보관하는 법 등 조선의 원예 기술을 집대성했습니다.

대개 매화 접을 불일 때에는 먼저 화분에 심은 작은 복숭아나무를 매화나무에 걸어놓고 두 나무가 닿는 부분의 껍질을 벗겨내고 합친 다음, 살아 있는 칡넝쿨로 단단하게 싸맨다. 화분은 반쯤 뾰이 들고 반쯤 그늘이 지는 곳에 두고 자주 물을 준다. 열매를 맺을 무렵 한기를 쐬면 열매를 다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지 또한 말라 죽는다...

연꽃을 심을 때는 붉은 꽃과 흰 꽃을 나란히 심어서는 안 된다. 흰 꽃이 무성하면 붉은 꽃은 꼭 시들게 마련이다...

마른 것이 맞는지 습한 것이 맞는지, 북돋우고 물주기를 가끔 하는지 자주 하는지, 식물의 생태와 재배법에 대한 곡진한 서술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가짐, 양육법과 다름없다고 느껴집니다. 한 걸음 나아가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되살펴보게 합니다. 꽃을 기르는 일은 ‘완물상지玩物喪志(물건을 가지고 놀면서 본심을 잊음)’가 아니라 ‘관물찰리觀物察理(사물에 깃든 이치를 살핌)’라 한 강희안의 뜻이 시대를 건너 현대에 와 닿습니다.

문인들만이 꽃을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1406년 태종은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고 당시 태상왕이었던 태조에게 매화 한 화분을 올리며 현수獻壽했다고 합니다. 화원을 여러 번 수리하고는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가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태조의 취향을 고려한 선물입니다. 성리학적 유교 이념 위에 세워진 조선의 국왕에게 화초 완상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삼가라는 상소가 사헌부에서 올라옵니다. 신하들의 간섭을 물리친 태조의 마음속에는 식물이 주는 위안과 치유가 굽은 뿌리처럼 깊게 자리했으리라 싶습니다.

성현의 ‘용재총화’, ‘문종실록’, ‘중종실록’에는 세자 시절의 문종이 궁궐 후원에 앵두나무를 가득 심었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손수 물을 주고 길러 열매를 올리니 밖에서 들어온 것과 같지 않다면 세종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소갈증(당뇨



전강세황필화첩. 국립중앙박물관



신명연. 화훼도. 국립중앙박물관



심사정. 묵모란도. 국립중앙박물관

병)을 앓아 한 동이 넘게 물을 마셨다는 세종에게 화와 열을 다스리는 앵두는 안성맞춤입니다. 열은 분홍을 띠는 흰색 꽃을 피워 봄을 알리고 손톱만 한 열매를 맺어 초여름을 알리는 앵두는 아비를 생각하는 자식의 마음을 품고 빨갛게 익어가나 봅니다.

실록에는 다양한 꽃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왕은 연산군입니다. 팔도 관찰사에게 모란을 비롯한 각종 화초를 바치게 하고 장원서(과일, 화초의 공급 기관) 노비에게는 진기한 화초를 찾아오라 명합니다. 영산홍 1만 그루를 후원에 심으라 한 후 묘목 수를 확인하며 관리했습니다. 집착과 광기의 대상이 되어버린 꽃은 색은 바래고 향은 지워져 생기를 잃었을 것 같습니다.

꽃을 아끼고 즐기는 데 신분의 차이는 없습니다. 화원 김홍도는 자신의 그림을 30냥에 팔아 꽃이 핀 매화 화분 하나 사는 데 20냥을 썼다고 합니다. 남은 돈으로는 매화의 고윽한 향기를 맡으며 술을 마시는 매화음梅花飲을 벌였답니다. 이른 봄 눈 속에서 꽃을 피우는 매화에서 선비의 꽃꽂한 기상을 느끼며 아취가 넘치는 모임을 가진 단원이 말년에는 곤궁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처지를 생각하다 부귀화富貴花라는 별칭을 지닌 모란을 떠올립니다. 매화가 아닌 모란을 곁에 두었다면 가세가 기울지는 않았을 텐데 싶어집니다.

크고 아름답고 화려하여 꽃 중의 왕이 된 모란, 왕실에서는 탐스러운 꽃송이와 무성한 잎이 화면을 가득 채운 ‘궁모란병宮牡丹屏’을 사용했습니다. 왕가의 영광과 번영을 기리는 행사에 잘 어울리는 모란병풍은 임금의 초상화 뒤에 배치되었고 국장國葬에까지 쓰였습니다. 점차 사대부가로 퍼져 나갔고 조선 후기에는 서민들의 혼례식에서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박한 필치와 자유로운 구



모란도.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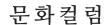
성의 다채로운 민화 모란병풍은 많은 수가 전해집니다. 부귀영화를 꿈꾸는 우리네 마음을 담은 색색의 꽃이 사시사철 피어 있습니다.

신화에도 꽃은 등장합니다. 제주도에 전승되는 <삼승할망본풀이>를 아시는지요. 아이를 점지해주는 삼승할망의 자리를 놓고 다투던 명진국 따님 얘기와 동해용왕 따님 얘기는 옥황상제의 제안에 따라 꽃피우기 내기를 합니다. 시들어 가는 검뉴울꽃을 피운 동해용왕 따님 얘기, 4만5천600 가지에 송이송이 번성꽃을 피운 명진국 따님 얘기, 모두 ‘금손’이지만 삼승할망의 자리는 명진국 따님 얘기가 차지합니다. 삼승할망은 서천꽃밭에 다섯 가지 빛깔의 꽃을 기르고, 그 꽃을 인간 세상에 가져다 주어 아기가 태어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천상의 꽃밭에 자신의 영혼 꽃을 지닌 셈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여쁜 꽃이었습니다.

문정원 회원



모란화병도. 운양민속박물관



# 델리

## 인도이슬람 건축의 보고(寶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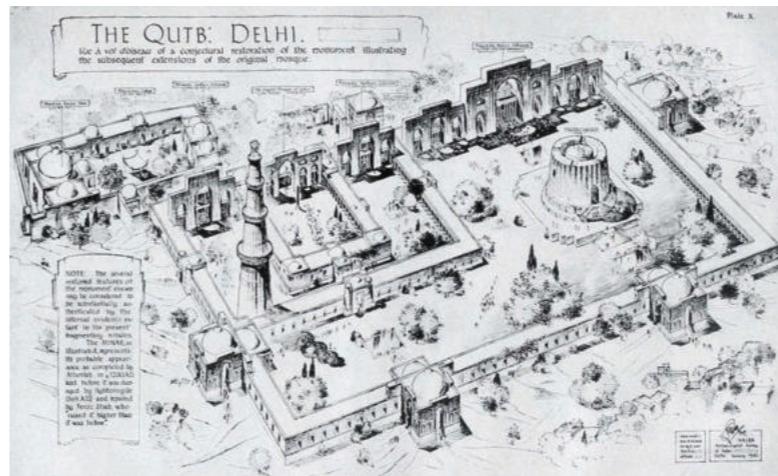
3월이 되면 델리(Delhi)의 아침은 온화하지만 한낮에는 쉽사리 30도까지 오른다. 그러나 아직 40도를 오르내리는 뜨거운 여름 날씨가 아닌지라, 올드 델리(Old Delhi) 등의 관광지는 여전히 인파로 북적인다. 현재 수도의 주요 시설이 밀집한 뉴델리(New Delhi)와 달리 올드 델리는 무굴제국의 다섯 번째 황제 샤 자한(Shah Jahan, 재위 1628–1658)의 수도였던 샤자하나바드(Shahjahanabad: 샤자한의 도시)와 그 주변을 일컫는다. 그 중심의 궁성은 오늘날 ‘붉은 성(Lal Qila)’으로 불리며 독립기념일 등 중요한 국가 행사 때 수상이 대국민 연설을 하는 곳이며, 샤자하나바드의 또 다른 주요 건축물인 대(大)모스크 역시 금요일 기도 시간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여기서 남쪽으로 향하면 로디 가든(Lodi Garden)등 아름다운 정원과 웅장한 영묘 건축을 다수 볼 수 있다. 인도 최초의 무슬림 왕조들이 현재 델리의 최남단에 세운 모스크와 영묘, 마드라사(madrassa: 학교)가 모여있는 쿠탄 단지(Qutb Complex)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인도의 인구는 80% 이상 힌두교를 따르고 있으나, 그 수도 델리는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무슬림 도시라는 정체성이 매우 강하다. 물론 델리가 위대한 서사시 『마하바라타(Mahābhārata)』에 등장하는 빤다바(Pandava) 형제의 왕도(王都)였다는 주장에 따르면 이미 기원전부터 중요한 곳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 북인도 제국(諸國)의 수도가 된 것은 1200년경부터라고 할 수 있다.

### 델리 술탄왕조(Delhi Sultanate)의 모스크와 영묘

12세기 말부터 북인도에 새롭게 등장한 세력은 이슬람으로 개종한 후 중앙아시아와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던 투르크 또는 아프간 왕조들이었다. 이들은 뛰어난 기마술과 일사불란한 군사작전을 구사하며 아대륙으로 진출하였고, 마침내 1192년 아프간 출신의 무함마드 구리(Muhammad Ghori)가 북인도의 힌두왕조들을 정복하면서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구리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면서 휘하의 노예장군 쿠탄 웃딘 아이박(Qutb ud-din Aibak)에게 정복지를 다스리도록 하였으며, 주군을 대신하여 아이박은 스스로 ‘술탄’ 칭호를 취하고 현재 델리 남부에 공동예배를 위한 대 모스크를 포함하여 새로운 수도인 쿠탄 단지를 건설하였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델리를 수도로 삼은 다섯 개의 술탄 왕조가 이어지던 300여 년간을 델리 술탄시대, 또는 당시 술탄들의 혈통에 따라 투르크 술탄시대라고 부른다.

델리 술탄들이 남긴 대표적인 건축으로 아이박이 짓기 시작하였던 쿠탄 단지의 대모스크를 꼽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슬람 군주들은 새로운 땅을 정복한 후 공동예배를 위한 모스크를 지었으며, 이는 종교적인 목적뿐 아니라 군주의 이름을 선포하여 권력의 정당성을 만방에 알리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였다. 아이박은 델리를 지키는 여신을 위하여 지어진 힌두사원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운 모스크를 지었으며(도판 1), 당시 기록에 의하면 새로운 모스크를 빠르게 건축하기 위해 27개의 힌두 사원과 자이나 사



(도판 1) 쿠왓 알 이슬람 모스크, 1192–14세기. 원면에 보이는 높은 첨탑은 아이박이 칙공하였던 미나렛으로, 대모스크의 위치를 알리고 망루의 역할도 하면서 새로운 술탄 왕조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세운 것이다. 첨탑의 뒤로 보이는 초창기 모스크는 이후 3차에 걸쳐 확장되어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다. (Percy Brown, Indian Architecture (Islamic Period) (Bombay: Taraporevala's, 1956) 도판 II.)



(도판 2) 기야스 알딘 뚜글루고의 영묘, 1325년. 요새를 연상시키는 성곽으로 둘러싸인 영묘는 붉은 사암으로 지어졌으며 흰 대리석으로 둘레와 창문 등을 장식하고 있다. 이는 질 좋은 붉은 사암이 풍부했던 북인도의 재료를 활용한 것으로, 이후 인도이슬람 건축은 대부분 이와 같이 붉은색과 흰색이 조화로운 모습을 보이게 된다.

원에서 기둥을 가져다 썼다고 한다. 이 모스크는 100여 년 동안 확장되며 델리 술탄왕조의 대표적인 모스크로 꾸준히 사용되었고 이후 쿠왓 알 이슬람 모스크(Quwwat al-Islam Mosque Complex, 1192–1311), 또는 “이슬람의 힘” 모스크로 불리게 되었다.

아이박의 왕조 이후 가장 강성했던 술탄 왕조는 뚜글루고 왕조(1320–1413)로, 이를 세운 기야스 알딘 뚜글루고(Ghiyas al-Din Tughluq)도 투르크계 노예용병의 아들 이었다. 북인도를 평정한 뚜글루고는 당시 세계정복을 꿈꾸며 진격하고 있던 몽골군을 막기 위해 쿠탄 단지의 남동쪽에 새로운 수도 뚜글루고바드(Tughluqbad)와 이를 둘러싼 거대한 방어용 성곽을 건설하였다. 수도의 격자형 도로와 성곽은 지금 일부 형체만 남아있는데, 백성을 보호하고 민생을 살피기 위해 도로와 성곽, 시장 등을 건설하는 것 역시 이슬람 군주의 의무 중 중요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뚜글루고는 뚜글루고바드 옆에 자신의 영묘를 같이 계획하여 지었으며, 인공 호수의 한 가운데 섬에 지어

진 영묘는 이슬람의 믿음에 따라 물이 흐르고 수목이 푸르게 번성하는 ‘천국’에 안치된 영혼을 상징한 것이었다(도판 2). 결국 몽골군은 내분으로 인도 침입에 이르지 못했으나, 델리는 1398년 중앙아시아 출신의 또 다른 정복자 티무르(Timur 또는 Tamerlane, 1336–1405)의 침략에 맞서 저항하다가 10만 명 이상이 참수되고 도시 전체가 폐허화되는 비극을 겪으며 이후 100년 가까이 이전의 영광을 되찾지 못하였다.

### 무굴 제국의 붉은 성 샤자하나바드

1200년 이후 델리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여러 술탄왕조는 대부분 강력한 통일왕조로 성장하지 못하고 멸망하였다. 이는 투르크족, 아프간족, 몽골족 등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용병세력을 기반으로 세워졌다. 약점과 함께 소수의 기마병으로는 밀림과 습지로 덮인 거대한 인도아대륙을 정복하여 통일국가로 유지하기에 역부족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모두 극복하고 수백

년간 세계적인 제국을 이룬 이들은 바부르(Zahr al-Din Muhammad Babur, 1526–1530 재위)의 후손들이었다.

바부르는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페르가나(Ferghana) 지역을 다스리는 왕자로 태어났으며 위대한 정복자들, 즉 몽골 제국의 첫 황제 징기스칸(Genghiz Khan, 1162–1227)의 후손이자 티무르의 5대손이라는 혈통을 매우 자랑스러워 했다. 그러나 바부르는 중앙아시아의 왕위 계승전에서 밀려나 아프가니스탄의 카불(Kabul)로 진출하였으며, 마침내 1526년 델리를 정복하면서 티무르의 델리 정복 사실을 근거로 이 도시를 ‘되찾았다’고 선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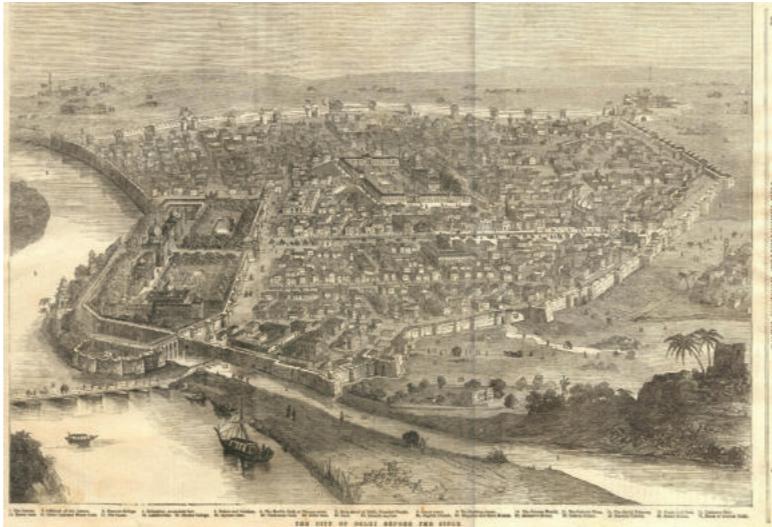
바부르가 세운 무굴제국은 그의 손자 악바르(Akbar, 1556–1605 재위)와 증손자 자한기르(Jahangir, 1605–1628 재위)의 치세에 정치·경제적 안정을 찾았다. 악바르는 아버지 후마윤을 위하여 델리에 거대한 페르시아식 돔을 얹은 영묘(도판 3)를 지었으나 이후 아그라(Agra)와 파키스탄의 라호르(Lahore)등 정치적 상황과 출정 지역



(도판 3) 후마윤의 영묘, 1571–80년, 기야스 알딘 뚜글루끄의 영묘와 마찬가지로 후마윤의 영묘 역시 붉은 사암으로 지어졌다. 아크바르 황제의 요청으로 중앙아시아 출신의 건축가가 설계하여 지어진 건축은 뾰족한 아치로 장식한 거대한 출입구에서 당시 이슬람 세계 건축의 영향을 볼 수 있다. (구하원 사진)

에 따라 여러 차례 수도를 옮기며 오랜 기간 술탄 왕조의 수도였던 델리를 중심으로 뿌리 내렸던 이슬람 귀족 세력을 분산시키려 하였다. 자한기르 역시 델리보다 까슈미르(Kashmir)의 별궁과 아그라성을 선호하며 델리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자한기르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샤자한(Shah Jahan, ‘세계의 왕’)도 형제들과의 왕위 계승 전쟁에서 승리하여 1628년 왕위에 오른 후 아그라 성을 재건하면서 아내를 위한 영묘인 타지마할(Taj Mahal, 1631–48)을 지을 때 까지 델리에 무관심한 듯 보였다. 그러나 1639년 쿠틀 단지 북부에 새로운 계획도시 샤자하나바드를 완공해 이주하면서 마침내 제국의 수도는 델리로 돌아오게 되었다.

반원형의 성곽으로 둘러싸인 샤자하나바드는 아무나강을 끼고 지어진 궁성(붉은 성)과 무굴제국의 대모스크인 자마 마스지드, 바자르(bazaar, 시장)로 둘러싸인 찬드니 촉(Chandni Chowk) 등으로 이루어졌다(도판 4). 아그라성



(도판 4) 샤자하나바드, 1639–1648. 19세기에 그려진 올드델리의 풍경에서도 성곽으로 둘러싸인 샤자하나바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원쪽 아무나 강변을 따라 지어진 샤자한의 궁성은 수풀이 우거진 정원에 위치하였으며, 중앙의 자마마스지드가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도판 5) 자마 마스지드, 샤자하나바드, 1650–1656. “세계를 관망하는 모스크”라 불리던 자마 마스지드는 샤자한의 대모스크로 한번에 25,000명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규모이다. 사자한의 대모스크 외에도 무굴 황실의 여성들이나 귀족들은 많은 모스크와 마드라사를 후원하여 아직까지도 올드델리 곳곳에 남은 모습을 볼 수 있다. (강현자 사진)

과 타지마할 등의 건축에서 엿볼 수 있듯이 샤자한의 건축은 여러 방식으로 강력한 왕권을 표출하였는데, 붉은 성 역시 화려한 건축과 아름다운 정원 뿐 아니라 넓은 도로와 광장 등 왕실 의례와 행진 등 의식에 최적화된 모습으로 설계되었다. 샤자한의 욕장부터 침소, 접견실, 그리고 제나나(zenana: 궁궐의 여성들이 지내는 곳)까지 이어지며 물이 흐르는 대리석 수로는 이 곳이 ‘낙원’임을 상징하였으며, 황제가 사용하는 공간은 ‘세계를 다스리는 왕’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값비싼 재료뿐 아니라 다양한 건축 개념과 양식을 도입하였다. 특히 샤자한의 거처는 빛나는 흰색 대리석으로 지은 후 은박으로 데온 천정과 금으로 장식한 기둥, 화려한 직물 등을 깔아 지상에서 천국을 재현하였다. 궁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새롭게 지어진 자마 마

스지드는 지금도 인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모스크로 꼽히고 있어 당시 샤자한이 위대한 이슬람 군주로서 자신을 부각하고자 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도판 5).

그러나 샤자한에 이어 왕위에 오른 오랑제브(Aurangzeb, 재위 1658–1707) 사후 무굴제국이 빠르게 쇠퇴하면서 델리 역시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인도 서부에서 일어난 힌두 마라타왕조가 무굴 제국군을 물리치고 델리를 정복한 직후,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나디르 샤(Nadir Shah)의 침략으로 샤자한의 유명한 공작좌(Peacock Throne)와 세계에서 가장 큰 코이누어(Koh-i-Noor) 다이아몬드 등 수많은 보물이 약탈당하였다. 연이은 마라타 왕조와 아프간 왕조의 침입으로 무굴제국의 황제들은 허수아비 신세로 전락하였으며, 결국 1803년 영국군이 샤자하나바드를 점령하면서 기나긴 식민통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1857년 북인도를 중심으로 영국통치에 저항하는 대봉기(The Great Uprising)가 일어나면서 델리에서도 수많은 전투가 벌어졌으며, 무굴제국의 마지막 황제 바하두르 샤(Bahadur Shah)가 반란군을 지지하며 후마윤의 영묘에 피신하였다가 체포되어서야 종결되었다. 영국인들에게 델리는 식민통치에 비협조적이었던 무슬림들의 도시 이자 위험한 곳이라는 인식이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1년에는 아대륙의 동쪽에 치우쳐 있던 식민수도 캘커타(Calcutta)를 떠나 델리에 새로운 수도를 짓기로 결정되었다. 이는 결국 델리술탄 왕조와 무굴제국 등 수백년에 달하는 제국의 수도로서 델리의 역사와 권위가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구하원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화학부 교수

# 내색 없이 비껴 않은 鄉校

답사여행에서 가장 만나기 쉬운 건축물이 뭐냐고 묻는다면 보통 국내는 사찰, 국외는 성당을 꼽을 것이다. 종교가 인간 삶에 미친 영향을 생각하면 이런 연결고리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지금은 지방 작은 마을에 불과하지만 전통사회에서 도회지였던 지역을 찾으면 어김없이 만나게 되는 공간이 있다. 바로 향교이다. 유교 이념을 표방하던 시기에 지방 재정으로 관아 근처에 설립된 교육과 제향의 공간이다. 많은 문화재와 자연 경관을 내포하는 사찰 건축에 보내는 관심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는 향교, 그 많은 사찰 건축의 지형이 '그 절이 그 절이 아니듯' 향교의 건축 공간도 엄격한 형식 위에 담긴 다양한 꾸밈새가 같은 듯 다른 색이다.

향교라는 명칭은 인종 20년(1142) '시험에 응시하는 지방 학생들은 계수관 향교의 도회(매년 여름 지방에서 인재를 뽑는 모임)에서 증명서를 내주도록 했다'는 『고려사』 기록에 처음 등장했다. 조선은 대성전에 공자를 모셔 놓고 성리학을 교육하는 향교를 통해 유교라는 통치이념과 지배질서를 기층 사회 깊숙이 확산시키려 하였다. 중앙정부는 교수와 훈도를 파견하고 학전과 학노비



양양향교

를 공급하여 교육 활동을 지원하며, 『경국대전』에 기록된 '학교규제'로 제도와 조직을 규정했다. 향교는 조선의 관학으로서 정신적 지주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엄격한 유교 예법에 따라 정형화된 공간 배치가 이루어졌는데 홍살문, 외삼문, 강학공간과 제향공간 그리고 관리 시설인 고직사로 이루어졌다. 가장 중요한 제향공간은 내삼문을 들어서 대성전을 중심으로 건물 좌우에 동무와 서무가 있는 형태이고, 강학공간인 명륜당은 좌우로 동재와 서재를 배치하였다.

주변 지형과 조화로움 또한 중요한 조건이었다. 경사지에 자리한 향교는 높은 곳에 대성전을, 낮은 곳에 명륜당을 두는데, 높고 낮음에서 우위를 제향공간에 있게 했다. 이 배치를 전학후묘라 하는데 강릉향교가 대표적이다. 평지에 위치할 때는 전체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대성전을 전면에 두고 명륜당은 후면에 배치한 전묘후학의 나주향교가 이에 속한다. 예외적인 병렬 배치인 좌묘우학의 형태는 지형적으로 높은 위치에 제향공간인 대성전이 자리하며, 성주향교를 예로 들 수 있다. 향교 건축의 엄격하지만 조화로운 멋을 잘 보존하여 보물로 지정된 제주, 강릉, 나주,

경주, 영천, 장수, 성주향교의 대성전과 성주향교의 명륜당은 절제된 건축과 다양한 표정을 담고 있다.

이제 230여 개의 향교 중 특히 배치와 입지가 독특한 향교의 건축 공간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산등허리에 위치해 공간감이 뚜렷한 양양향교를 보자.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양양도호부에 고려 말 유학자 안축이 향교를 짓고 기문을 남겼다. 벽사의 의미를 담은 붉은 칠에 창끝 모양 살가지를 꽂은 홍살문을 지나 길고 높은 계단을 올라가 보자. 외삼문 대신 7칸의 긴 명륜당 건물이 앞을 막아 다음 공간이 궁금해진다. 명륜당은 조망권이 좋은 누처럼 보이는데 기둥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석축 위에 올라앉아 정말 특이하다. 그 아래를 통과하면 계단 위에 마당이 기다린다. 보통 호위하듯이 명륜당 앞쪽에 나란한 동재와 서재가 누각형 건물일 때는 □자 마당 안쪽에 배치된다. 마당 정면에 위치한 내삼문에는 우주의 근원이면서 발전과 번영을 상징하는 태극도가 그려져 있다. 태극은 성리학자들도 즐겨 사용하는 문양으로 삼일 태극이나 음양 태극은 자주 보이지만 이처럼 주돈이의



양양향교 내삼문



양양향교 대성전 안



강릉향교

태극도를 사용한 경우는 흔치 않다. 대성전에는 공자와 4대 성인을 비롯한 중국 성현들이, 동무와 서무에는 우리나라 유학자 18인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한국전쟁으로 소실되어 다시 재건되었으나 땅의 기운에 맞춰 건물의 용도를 달리한 건축 공간이 볼수록 흥미롭다.

강원도에 흔치 않은 누각형 건물을 가진 향교는 양양향교 외에 간성, 강릉향교가 있다. 조선 초에 세워진 강릉향교도 양양향교처럼 긴 11칸의 명륜당 문루가 먼저 나선다. 매 칸마다 네 짹 세살창의 단순한 비례가 압도된 공간의 긴장을 풀어준다. 마당으로의 진입은 누하 대신 동재 방향에 출입문이 나 있다. 그리고 강릉향교만의 특별한 공간, 전랑殿廊이 내삼문을 대신한다. 궁궐 정전에서나 볼 수 있는 9칸 회랑이 대성전의 위엄을 한층 높여준다.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대성전은 건물 내부에 전돌 대신 박석이 깔려 있고, 원형의 배흘림기둥은 견고한 안정감을 준다. 특히 맞배지붕 기와의 다양한 문양에서 높은 격식을 보여 주는데, 수막새와 암막새에 연화문, 인동당초문, 범자문, 용문 등과 망와의 봉황문이 인상적이다.

고려 인종 5년(1127) 경남 산청에 세워진 단성향교는 급경사지에 3단 평지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지만 길 어귀의 흙돌담장은 정겹기만 하다. 경계인 홍살문을 지나면 높은 축대 위에 선 관선문과 만난다. 상류층 가옥의 문간채와 닮은 외삼문이다. 얼핏 보면 솟을대문 같은데 어칸과 좌우 건물은 별도의 건물이라 요리조리 보게 된다. 관선문 위로 누각 형식의 명륜당이 기다린다. 내삼문 방향으로 열린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맞배지붕이 색다른工자형 구조이다. 그리고 보니 특이했던 관선문과 내삼문의 지붕 형태도 명륜당과 잘 어울리는 구성이다. 대청 각 칸에 쌍여닫이 판문도 웅장하고 단청이 전혀 없는 백골집은 옛 모습에 충실히 보인다. 남쪽을 향해 누마루를 내고 계자난간을 한 동재를 보라. 눈썹지붕이 이색적이며, 마루 위에 자연스럽게 흰 보가 멋스럽고 듬직하다. 다시 높은 축대 위에 7칸 규모의 내삼문이 놓인다. 삼문 양쪽 끝으로 난 출입문을 열면 묘하게 푸르른 대성전이 마주 본다. 정면 3칸 측면 3칸 주심포계 맞배지붕이 정갈하다. 대성전 뒤쪽 급경사 언덕은 공간을 감싸 안 듯 담장이 둘러져 있는데 예서 보면



강릉향교 전랑과 대성전

풍광이 시원하고 지붕모양은 재미있다. 동재 뒤쪽 향안실은 숙종 4년부터 정조 13년까지 단성현 호적대장을 보관하고 있는데, 조선 후기 사회상을 살피는 좋은 자료일 것 같다.

향교는 영조 때 공식 교육 기능을 상실하고 이후 제향의 기능만 담당하게 되었다. 대신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하고 기강을 유지하는 사회 교화의 기능이 부각되었다. 다산이 강진 유배 시절 피폐한 민중의 삶을 '애절양'이라는 시에 담아냈듯이 삼정의 문란, 특히 환곡의 폐단이 가장 심해 최저 생활도 어려웠던 단성면의 농민들은 1862년 관아를 습격하는 최초 농민항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진주를 거쳐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단성향교 향회의 양반 토호와 부민들은 농민군과 함께하며 단성 농민항쟁의 구심점이 되었다. 내색 없이 비껴 앉아 잊혀가는 농민항쟁을 기리는 향교의 사회적 기능은 큰 울림을 준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가파른 지형을 고려한 담양의 창평향교도 배치가 독특한 향교라고 한다. 담이 둘러쳐진 마당을 가진 대성전도 궁금하지만 좁은 공간이라 누벽이 다가서고, 좁은 골목이 회랑을 이룬다니 신기한 건축공간이다. 함께 본 이 향교들은 경사도가 높은 지형을 살리면서 충실한 건축 공간을 담아내 조밀하지만 극적인 긴장감을 안겨준다. 탁 트인 시야와 더불어 향교의 명료한 공간감은 옛사람의 시선에 한 발 다가서는 기분이다.

'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이미 알던 것도 다르게 보인다.'

정은경 회원



단성향교 전경



단성향교 명륜당



단성향교-동재와 내삼문



단성향교 후경

# 소소한 일상을 그리다



김홍도의 풍속화는 익살스러우면서도 생동감이 있어 바라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슬며시 입꼬리가 올라가며 빙그레 웃음을 짓게 된다. 그럼 속의 인물에게 감정 이입을 하며 즐거운 상상의 나래를 펴고 마치 거기에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빨래터>에서는 리드미컬한 빨랫방망이 소리, 아낙네들의 온갖 수다와 함께 어린아이의 칭얼거림이 들리는 것 같고, <타작>에서는 타작하며 부르는 노동요가 귓가를 맴돌고, <서당>에서는 참으려고 애쓰지만 슬며시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는 그림 속의 학동이 되어 함께 킥킥거린다.

이렇듯 그림을 보면서 마치 내가 그 공간에 같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김홍도 그림에 표현된 인물이 일상 생활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낯익은 친밀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그림 속의 인물에 대한 김홍도의 편견 없는 시선이 감동을 더한다. 그 누구든 그들의 소중한 각자의 삶을 기꺼이 인정하고 그들의 삶을 공감하며 마치 그들과 일행인 듯 함께 하는 김홍도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를 그의 그림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김홍도는 소소한 일상생활의 즐거움을 그려 사회적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떠나서 어떤 삶이든 가치가 있고 존중해야 할 소중한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김홍도의 그림에서 느낄 수 있는 여유로움은 적절한 여백이 주는 조화와 균형이라고 생각한다. <서당>, <무동>, <씨름> 등에서 보이듯이 한 면을 비워 두고 있지만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면서 누구 하나 튀거나 모자람 없이 조화를 이루어 보는 이에게 편안함을 안겨 준다. 뿐만 아니라 툭툭 그은 듯한 투박한 붓질로 눈, 입, 눈썹 등을 표현하는데 미세한 각도와 길이에 따라 인물의 성품이나 순간의 기분까지 눈치채게 한다. 그중 백미는 <서당>의

훈장님 표정이다. 어린 제자를 혼내서 마음이 찐한데, 돌아앉아 훌쩍이는 모습이 귀여워 빙그레 웃음이 나오지만 제자가 무안할까 봐 웃지 못하고 참고 있는 모습을 눈과 눈썹, 튀어나온 광대로써 절묘하게 표현했다.

<씨름>의 옆을 파는 앗된 아이의 표정에서는 씨름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씨름을 한두 번 봤나? 이제 곧 끝날 것이고, 난 이 정도 옆을 팔았으면 됐다.’며 만족하는 흐뭇한 미소가 보인다. 한편 씨름꾼의 표정을 보면, 눈을 똥그랗게 뜨고 양미간에 깊은 주름까지 잡혀 있는데 온갖 생각이 교차하는 당혹스러움을 읽을 수 있다. 한 쪽 발이 들린 상태에서 이미 승패가 갈렸음을 본인은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잔뜩 찌푸린 얼굴에서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결연한 의지가 보인다.

시선을 옮겨 찬찬히 관중들의 표정을 살펴보면, 조금 후 판가름이 날 승패의 결과를 모든 사람이 예견하고 있지만 화면 오른쪽 위의 사람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상체를 숙이고 남들보다 한 발짝 앞으로 나와 있다. 긴장된 순간이지만 응원하는 씨름꾼이 이길 것 같아 기쁜 표정이다. 반면, 화면 오른쪽 아래의 두 사람은 어쩌면 씨름꾼들이 자기네 쪽으로 쓰러질까 봐 놀라 뒤로 넘어질 정도로 상체를 뒤로 젖히고 입을 크게 벌린 채 엉덩이를 뒤로 끌고 있다. 일촉즉발의 위급한 상황을 익살스럽고 실감나게 묘사했다.

김홍도의 그림은 보는 이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물로 주어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김홍도의 풍속화를 보며 잠시라도 깔깔 웃고 즐거움을 느끼며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길 바란다. ☺

윤덕희 회원





기메 동양 박물관

## 파리 박물관 방랑기

지난해 12월 계획에 없던 파리 여행을 다녀왔다. 애초 마음먹었던 도시도 시기도 아니었기에 출발 열흘 전 비행기 표를 사면서야 겨우 돌아오는 날짜를 확정할 수 있었다. 파리에만 머물지 사흘 정도 남프랑스를 다녀올지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준비한 건 파리 뮤지엄 패스 6일권과 휴대전화에 쓸 유심 카드뿐이었다. 12월 5일부터 전국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 동네에서는 자주 있는 일니 뭐 그리 큰 차질이야 생기겠나!’ 하며 넘겼다. 애초에 정했던 리퍼블릭 광장 근처의 숙소를 시위가 예상되니 다른 곳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권고를 들었을 때에도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다.

파리의 박물관들을 여유 있게 둘러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었다. 특히 ‘국립 기메 동양 박물관’에 있는 김홍도의 <행렬풍속도>와 <철조 천수관음 보살 좌상>을 보고 싶었다. 비행기가 환승객을 기다린다면 1시간 10분이나 늦게 출발한 일도 나중에 생각하니 파란만장한 여행의 조짐이 아니었을까 싶다. 어쨌든 열두 시간이 넘는 지루한 비

행 끝에 늦은 밤 숙소에 도착하니 창밖으로 불 밝힌 에펠탑이 보였다.

다음날 아침 기메 박물관으로 출발했다. 2,30분이면 도착 할 거리인데 에펠탑 앞 트로카데로 광장 로터리에서 차들이 꼼짝도 못 한다. 차에서 내려 걸어가려니 경찰들이 아예 개선문 쪽으로 향하는 대로를 막고, 차뿐 아니라 사람도 지나가지 못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기메 박물관에 간다고 했더니 큰 길 말고 주택가 쪽으로 돌아서 가란다. 구글 지도로는 8분 걸리는 길을 이리저리 빽빽 돌아 30분 넘게 걸려 박물관 앞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박물관 앞 광장에 칠팔백 명(?) 아무튼 천 명은 안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파란 조끼를 입고 모여 있고 경찰이 차단선을 설치했는데, 박물관 정문이 그 차단선 바로 안쪽이다.

박물관 앞에 서 있는 경찰관을 붙잡고 ‘난 멀리서 왔다. 오늘 꼭 봐야 한다.’ 등등 한참을 통사정했지만 소용이 없다. ‘미안하다. 내일 와라.’ 이 말뿐이다. 아쉬움에 30여 분 주변을 빙빙 돌다 다음 행선지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지도를 한참 들여다보다 고른 곳이 센 강 건너편에 있는 케브랑리 박물관이었다. 프랑스의 유명 건축가 장 누벨의 작품인 이 박물관은 아주 모던한 원색의 입방체로 되어 있는데 널찍한 정원의 조경은 인위적 요소가 거의 없이 자연스럽다. 오세아니아,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의 다양한 문화를 담고 있는 전시물들과 묘한 조화를 이룬다.



에밀 기메의 초상

케브랑리를 나와 센 강을 따라 걷고 또 걷다 보니 오르세 미술관이 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계속 걷다가 다리를 건너 루브르 박물관으로 갔다. 어느새 날이 어두워지면서 텔르리 공원의 크리스마스 마켓과 관람차에 조명이 켜지고 낮과는 다른 분위기가 펼쳐진다. 이 날은 루브르가 야간 개장을 하는 날이었는데 생각보다 기다리는 줄이 짧아 입장도 금방 하고 지난 번 왔을 때 스치며 봤던 이집트와 그리스 유물들을 좀 찬찬히 볼 수 있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 날이 그래도 괜찮은 날이었다. 파리의 파업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나빠져만 갔다. 어쨌든 다



음날 아침 다시 기메 박물관을 찾았다. 이 날은 버스를 타고 갔는데 다행히 문이 열려 있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다. 1층 로비의 앙코르와트 유물들이 있는 쪽에 줄을 쳐놓은 것이다. 무슨 일일까 궁금해 하며 위층으로 올라가 설립자 에밀 기메의 서재처럼 꾸며놓은 자그마한 전시실을 봤다. 그런데 바로 앞의 한국실은 문이 닫혀 있었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파업 중이라 인력이 부족해서 전시실 문을 못 연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나쁜 아니라 우연히 만난 20명이 넘는 한국 답사팀이 박물관 사무실에까지 가서 물어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영희의 꿈-바람과 꿈의 웃김’이라는 한복 전시회를 보고 4층의 중국 도자기 소품도 보았지만 기메 박물관에 온 목적과는 거리가 멀었다. 914점이나 된다는 우리 유물을 단 하나도 못 보았으니 말이다.

이후로도 열하루 동안 참 많은 일을 겪었다. 오랑주리 미술관에서는 4시 40분에 5시에 문을 닫는다는 안내방송이 나온다. 급히 모네의 수련이 전시된 방으로 갔는데 이미 웃을 모두 갈아입은 직원들이 나가라고 막 쫓아내다시피 했다. 자기들의 퇴근이 5시라는 얘기이지 관람시간이 5시까지는 아니라는 듯이. 판테온은 아무 표시도 없이 문을 닫았고, 로댕 미술관은 달랑 ‘오늘은 열지 않는다.’는 종이 한 장 붙여놓고 문을 닫았다. 오르세 미술관 역시 야간개장일에 맞춰 갔지만 5시에 닫는다며 4시부터는 입장을 시키지 않았다.

지하철은 1호선과 14호선만 정상운행하고 나머지는 출퇴근 시간에만 다니기 때문에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 하루 종일 차가 막혔다. 버스도 예정 시간에 오는 일이 거의 없고 오더라도 사람이 너무 많아 못 탄 적이 많았다. 여행히 탄 버스가 중간에 멈추더니 ‘여기서 모두 내리라.’는 일도 두 번이나 있었다. 아래저래 하루 2만 7천보 어떤 날은 3만 5천보를 걸었다. 이것만으로는 서운했던지 오기 전전날 밤 시내 한복판에서 휴대전화를 소매치기 당하는 일까지 겪었다. 그동안 찍은 사진은 모두 사라졌고, 중간 중간 친구들에게 보냈던 사진만 겨우 남았다. 다음날 경찰서에 찾아가 도난신고를 하는 경험까지 파란만장한 여행이었다.

이 과정에서 가졌던 의문은 ‘왜 여기 사람들은 버스 기사가 내리라고 할 때나 박물관 직원이 나가라고 할 때 아무 질문이나 불만이 없을까?’였다. 우리나라 같으면 강하게 항의할 상황에서 단 한 사람도 안 그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현지에 오래 살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내 권리가 소중하면 그만큼 타인의 권리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몸에 배었기 때문일 거란다. 성숙한 시민의식이라 해야 할까?

돌아오는 날 공항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생각했다. ‘담에는 꼭 가고 말 거야. 기메 박물관.’

길문숙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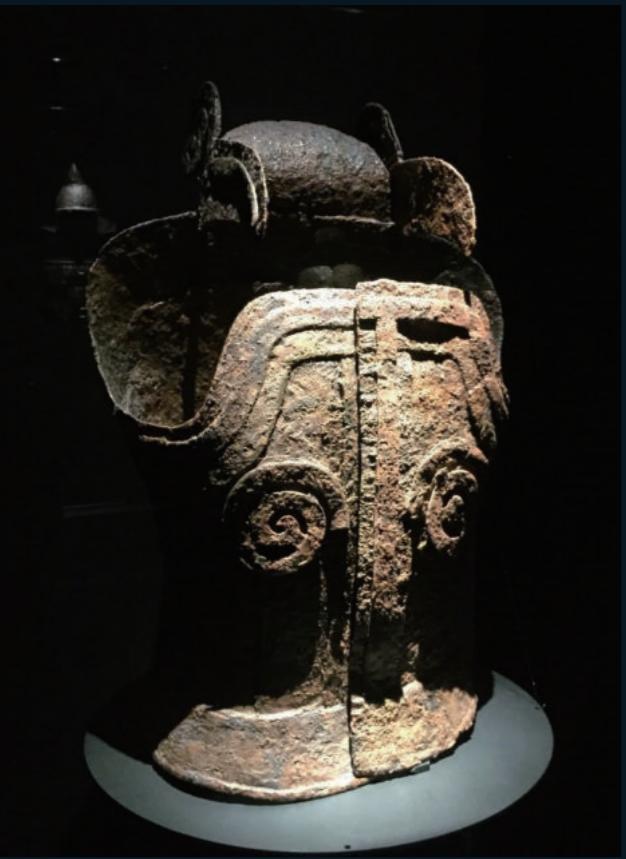


대야 토기

## “고을마다 고을의 소리로 살아가도록”

옛사람들이 남긴 유물과 만나는 일은 그들의 삶과 생각에 다가가는 일이라 의미가 있습니다. 가야인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잣빛 토기의 다감한 곡선, 구슬이 머금은 영롱한 빛, 그리고 나무와 비단실이 만들어내는 가야금 소리는 친근하고 편안하게 마음을 잡아줍니다.

가야인들이 남긴 토기는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압도적입니다. 회청색을 띠는 이 경질토기들은 가마의 온도를 1200도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앞선 기술의 산물입니다. 가야의 여러 나라는 문화적 지리적으로 서로 이웃했지만 각자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며 공존을 추구했는데, 이런 정신은 각자가 생산해낸 토기에도 반영되어 분명한 일관성과 동시에 각자의 은근한 개성이 드러납니다.



종장판 갑옷, 국립김해박물관

전시실에서 마주하는 가야토기들은 무덤에서 나온 부장품이며 제사에 쓰이던 그릇이 대부분입니다. 접시들은 높은 굽다리가 달렸습니다. 목이 긴 항아리는 높이 괴어 주는 굽다리 달린 사발형 반침이 딸려 있습니다. 대부분 뚜껑도 함께 제작되었습니다. 아래서 받치고 위에서 덮고, 그릇만 보아도 예를 갖추고 정성을 들이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쓰고 있는 굽다리 높은 제기들의 원형입니다. 망자에게 또는 신령한 존재에게 바치는 음식은 가능한 높이 고여 올려야 했습니다. 키가 70cm에 달하는 원통모양 그릇받침의 첫인상은 강렬합니다. 부안 죽막동제사유적지에서 출토된 늠름한 그릇받침들을 보면 제나라를

향해 머나먼 항해를 떠나는 5세기 후반 가야국(대가야) 사신단의 규모와 결의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야의 토기들 중에 엄숙한 제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이나 배 모양을 묘사한 상형토기들은 가야인들의 생활상을 선명히 전해주는 부장품입니다. 가야의 집모양 토기 중에서도 흥미로운 작품이 우리 박물관 가야실에 전시되어 있는데, 초가지붕 위에는 고양이가 올라가 있고 사다리에 쥐 두 마리가 붙어 있습니다. 언젠가 외암마을 어느 초가집 지붕 위를 다니는 고양이를 보며 오후라, 저기가 최고의 사냥터로구나 했는데, 고양이와 쥐의 행태는 1500년 전에도 한결같았습니다. 현풍에서 출토된 이 자그마한 집을 보고 있으면 옛 가야인의 평온한 일상이 떠오릅니다. 낙동강 주변 땅은 비옥하고, 마을 대장장이에게서 구한 철제 농기구는 생산량을 크게 늘려주었으며, 곡식 저장을 위해 고양이 보안요원을 두는 삶은 만족스러웠을 것입니다. 왕의 가신이나 식솔과 달리 순장의 위험도 없고 말입니다.

토기와 더불어 가야를 대표하는 유물은 철제 갑옷과 마구 등 고도로 발달한 철기술의 풍성한 흔적입니다. 3세기에 기록된 『삼국지』「위지 동이전」은 김해에 자리한 구야국(금관가야)을 철의 집산지이자 교역의 중심지로 소개합니다. 가야의 주력 수출 품목인 철정은 반가공된 강철제품으로 그 자체가 도끼 머리의 역할을 했으며 화폐나 부장품으로도 활발히 사용된 신통한 상품이었습니다. 우리가 박물관에서 만나는 철제 유물은 붉게 녹슬고 유통불통하게 부식된 모습이지만, 상상 속에서 세월의 더께를 벗기면 매끄럽고 은회색으로 빛나는 당대 최고의 하이테크 제품들이 되살아납니다. 가야의 장인들은 최적의 강도와 탄성을 얻기 위해 철을 가공하고, 인체공학적으로 철판을 곡면화한 후 연결하여 단조에 들어갔으며, 어깨에는 깃털을 꽂는 홈까지 만들었습니다. 부드러운 착용감을 위해 안쪽에 가죽

을 덧대고 목 주변을 모피 장식으로 마감하면 대략 10kg인 판갑옷이 완성되었습니다. 가슴 부분의 고사리문양 장식까지, 가야의 철갑옷은 탁월한 기술과 미의식의 산물이며, 삼국과 나란히 존속할 수 있었던 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가야로부터 물려받은 또 하나의 유산은 가야금입니다. 명주실을 꼬아 만든 열두 현을 통기면 오동나무 울림통에서 맑고 온화한 소리가 납니다. 대가야의 황혼기에 우륵이 가슴에 안고 신라로 망명한 가야금은 오늘날의 범금과 같이 생겼습니다. 공명통 아래 끝에 따로 단단한 나무로 만든 양이두를 꽂고 거기 현을 매달아 궁중음악인 정악을 연주하는 데 쓰입니다. 반면 그보다 조금 크기가 작은 산조 가야금은 민속음악 연주에 쓰입니다. 황병기선생의 말을 빌리면, “정악은 명상적이며 그림에 비유하면 문인화에 해당합니다. 산조는 연주 기교의 극치를 보여주고 조이고 푸는 맛의 미학을 대표하는 예술입니다. 민중의 희로애락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우륵은 가야국(대가야) 가실왕의 명에 따라 가야의 각 나라를 대표하는 열두 곡을 작곡했습니다. 삼국사기는 우륵의 12곡이 ‘번잡하고 음란하여 아정하지 못하므로’ (그의 제자들이) 5곡으로 바꾸어 신라의 정악으로 삼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빠르고 복잡하며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데, 듣고 보면 웬지 음주가무를 즐기고 곡선이 유려하고 디자인이 다양한 토기를 남긴 가야인들의 악이 신라인들에게 그리 비춰지지 않았을까 싶고, 우륵의 12곡은 오늘날 전하는 정악과 산조 중에서 후자에 더 가깝지 않았을까 추측하게 됩니다.

우륵과 같은 음악인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 없으니 우리는 가야 사회에 축적된 문화적 소양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야금 제작 방법 또한 정교하고 단단한 철제 공구들과 명주실 생산 기술을 요하는 일이며 발달된 도량형 체계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비록 그들 자신의 기록이 오늘에 전하지 않지만, 가야인들은 풍부한 유물을 매개로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땅, 아름다운 산천과 인접한 바다의 복잡한 해안선은 태고로부터 사람이 살기 좋은 터전이었고, 독립된 정치체계로 통합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은 그만큼 현실에 만족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가야인들에게 유일하게 부족했던 것은 야심이나 정복욕이었을까요? 더불어 즐겁게 살았던 그들에게 주변 정세와 시대 변화에 둔감했다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를 사는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와 관용을 그들은 고대에 이미 누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들어라.  
금이 갖추어지면, 여러 고을의 소리를 따로따로 만들어라.  
고을마다 말이 다르고 산천과 비바람이 다르다고 들었다.  
그러니 어찌 세상의 소리를 하나로 가지런히 할 수 있겠느냐.  
고을마다 고을의 소리로 살아가게 하여라.

황문영 회원



집모양 토기, 국립중앙박물관

## 44기 박물관 특설강좌

40여 년 전통의 특설강좌는 우리 역사와 예술에 대해 전문강사진에게 배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강좌입니다.

## 모집 안내

모집인원	화요반 : 200명	목요반 : 200명
<b>강좌내용</b>		
역사학, 인류학, 고고학, 미술사, 불교미술, 사상사, 박물관학, 전시실 교육 및 고적답사		
<b>수강기간 및 시간</b>		2020년 3월~11월 (매주 1회, 13:00 ~ 17:00)
<b>교육장소</b>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소강당
<b>참고사항</b>		박물관 특설강좌 수료 후에도 계속적으로 박물관 연구강좌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신청기간(추가모집)	2020년 3월 31일(화)까지 선착순으로 추가모집
수강료	570,000원(1년 과정)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 <a href="http://www.fnmk.org">www.fnmk.org</a> 현장접수 :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101호



특설강좌 강의장면



전시실 교육



고적답사

# 2020 박물관 특/설/강/좌

## 특설강좌 강의일정

과목	강사(화 · 목요반)	과목	강사(화 · 목요반)
한국박물관사	장상훈(박물관)	한국고대사	윤선태(동국대) 여호규(한국외대)
고려시대사	채웅석(가톨릭대) 박종기(국민대)	조선시대사	한명기(명지대) 강문식(규장각)
인류와 문화	한건수(강원대) 이태주(한성대)	형질 인류학	김재현(동아대) 우은진(세종대)
비교문화론	이태주(한성대) 한건수(강원대)	고고학개론	장용준(박물관) 최성락(목포대)
구석기 · 신석기 문화	이기길(조선대) 김장석(서울대)	청동기 · 철기 문화	이남규(한신대) 조진선(전남대)
고조선 문화	송호정(교원대)	고구려 문화	전호태(울산대) 최종택(고려대)
백제 문화	이병호(박물관)	신라 문화	윤선태(동국대)
가야 문화	박천수(경북대) 이영식(인제대)	발해 문화	고영민(박물관) 이우섭(박물관)
몽골 문화	이평래(한국외대) 강인욱(경희대)	특강(서양미술1)	김향숙(홍익대)
중국고대문화	정대영(동양대)	일본고대문화	임남수(영남대) 이기성(전통문화)
중국회화	장진성(서울대) 장준구(월전미술)	전시실교육	학예사(박물관)
중국도자	장남원(이화여대) 방병선(고려대)	고려청자	윤용이(명지대) 장남원(이화여대)
분청사기	박경자(문화재청) 전승창(아모레)	조선백자	전승창(아모레) 장기훈(경기도자)
한국산수화	이수미(박물관) 이태호(명지대)	한국인물화	유재빈(홍익대) 유미나(원광대)
한국풍속화	백인산(간송미술) 정병모(경주대)	한국불화	박은경(동아대) 김정희(원광대)
특강(서양미술2)	이화진(한국항공대)	근현대미술	강은주(이화여대) 조수진(이화여대)
동남아시아 문화	조홍국(부산대) 소병국(한국외대)	중앙아시아 미술	한지연(금강대) 임영애(동국대)
인도불교조각	임영애(동국대) 주수완(고려대)	인도문화와 미술	구하원(서울대)
중국불교조각	배재호(용인대) 최선아(명지대)	한국불교조각	송은석(동국대) 배재호(용인대)
한국금속공예	최응천(동국대) 한정호(동국대)	전시실교육	학예사(박물관)
중국건축	한동수(한양대)	한국건축	이강근(서울시립대) 김봉렬(한예종)
한국고지도	장상훈(박물관)	특강(이집트미술)	유성환(서울대)
한국와전	김성구(박물관) 유창종(유금박)	종교문화	김종서(서울대) 유요한(서울대)
유교사상	진성수(전북대) 조장연(성균관대)	불교사상	남동신(서울대)
한글	이동석(교원대) 조남호(명지대)	석조미술	최선주(박물관) 소재구(문화재청)
보존과학	박영만(박물관) 이용희(박물관)	한국과학사	김호(경인교대) 이문규(전북대)
한국음악	김영운(국악방송)	수료증 수여	

\* 특설강좌 강의일정과 강사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0 박물관 테마강좌

국립중앙박물관회가 새롭게 개설한 테마강좌는 기존의 특설·연구강좌와 차별화하여, 하나의 주제를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마련한 강좌입니다. 테마강좌를 통해 과거를 살펴보면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과 서사

본 강좌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품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들을 다루며, 미술품과 사회의 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 분야와의 관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미술품을 둘러싼 당대의 문화와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 경제와 과학, 수집의 문화 등 미술품에 대한 동시대의 다양한 연결고리를 알기 쉽게 다루고자 한다.



최병진(한국외국어대학교 이탈리아어과)

로마 국립대학교 라 사피엔자 예술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피렌체 국립 대학교 미술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로마에 있는 '포리 임페리알리 시립 박물관'과 '국립 동양 박물관'에서 근무하였다. 저서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상상의 날개를 활짝 펼치다』, 『이탈리아 유산의 역사와 제도』, 『미켈란젤로, 고난을 딛고 예술혼을 피어올리다』 등이 있으며 공저로는 『의미, 의학과 미술 사이』, 『이탈리아 문화의 이해』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대영박물관』, 『에르미타쥬 박물관』, 『베를린 국립 회화관』, 『르네상스 미술』, 『르누아르』, 『루벤스』, 『마네』, 『호퍼』, 『표현주의 화가들』, 『움베르토 에코의 『중세』』, 『신과 인간 르네상스 미술』 등이 있다.

\*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소강당

\* 시간 : 매주 목요일 오전 10:00~12:00

\* 대상 : 우리회 회원과 일반인

\* 모집인원 : 200명

\* 수강료 : 330,000원(기부·특별회원 특설 연구강좌 수강생 28만원, 일반인 33만원)

### 모집일

\* 회원 : 2020년 3월 16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모집(180명)

\* 일반인 : 2020년 3월 23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모집(20명)

### 신청방법

우리회 홈페이지([www.fnmk.org](http://www.fnmk.org)) 또는 현장접수(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101호)

2020

## 박물관 테/마/강/좌

### 강의일정

강좌	날짜	강의주제 및 내용
1	5월 7일	르네상스 시대의 전사 : 인간을 보는 눈 르네상스 시대 인간의 모습에 대한 관심과 기술은 작품의 묘사뿐만 아니라 도상학적 맥락 속에서도 드러난다. 첫 강의는 순례의 길에서 축발된 경제적 부와 경쟁이 당시 미술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관람자의 관점을 고려해서 추적하며, 교회 건축물 내 "보이는 것"과 "발견되어야 하는" 미술품의 배치를 통해 중세 미술과 다른 방식으로 인간을 표현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2	5월 14일	르네상스 시대의 새로운 예술가의 우상 르네상스 시대 건축가, 미술가, 조각가에 대한 사회적 생각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이 강좌를 통해서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이 우리 시대의 예술가와 다른 점을 살펴보려고 한다.
3	5월 21일	르네상스 시대 드로잉이 의미하는 것 르네상스 시대 드로잉은 모든 예술의 토대로 여겨졌으며, 다양한 유형의 드로잉을 만들어냈다. 서로 다른 유형의 드로잉을 통해 당시 미술에 대한 생각을 살펴본다.
4	5월 28일	원근법과 서사 I : 공간의 재구성 르네상스 시대 원근법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켰지만, 동시에 이야기를 읽어나갈 수 있는 구조가 된다.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의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이야기의 공간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능성을 살펴본다.
5	6월 4일	원근법과 서사 II : 은행, 대수, 캐릭터의 탄생 르네상스 시대의 원근법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켰지만, 동시에 이야기를 읽어나갈 수 있는 구조가 된다.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의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공간과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본다.
6	6월 11일	허영의 화형식과 세기의 극장 : 르네상스 미술의 중심지들 로렌초 데 메디치의 수집과 후원은 일시적으로 고전에 대한 우호적 태도에 대한 반발을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서 피렌체에서는 도메니코 수도회 소속의 사보나롤라가 권력을 쥐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며, "허영의 화형식"이라고 부르는 예술품을 불태우는 과정 속에서 고전에 대한 가치를 무너트렸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오히려 예술품의 역사와 가치를 확장하며 피렌체를 르네상스 시대의 문화적 중심지로 변화시켰다.
7	6월 18일	르네상스 시대의 초상화 : 알레고리와 상징의 놀이 르네상스 시대 많은 작품들이 알레고리와 상징을 통해 눈앞에 보이는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고안하고 있다. 이런 점을 르네상스 시대의 초상화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8	6월 25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많은 노트와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상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오늘날 수많은 직업을 지니고 있는 르네상스 시대의 재능을 타고난 인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이 생각한 특별한 화가의 모습이 놓여 있다. 그는 라틴어를 읽고 쓰는 데 서툴렀기 때문에 과거의 생각을 넘어서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냈다.
9	7월 2일	미켈란젤로의 "바쿠스"상과 수집의 문화, 위작과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 미켈란젤로가 제작했던 〈바쿠스〉상은 르네상스 시대 위작에 대한 논의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수집 문화의 탄생과정에서 일어났던 동시대 예술가의 경쟁을 넘어서 고전과 동시대 작품의 관계를 구성하며, 예술의 경제적 가치와 작품의 의미를 검토하게 만든다.
10	7월 9일	미술 공간의 재구성: 이야기의 공간과 세계의 재구성 미술품이 배치된 공간은 작품의 사회적 기능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이야기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야기의 구조를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를 통해 이야기를 스스로 읽어갈 수 있는 기준들을 살펴본다. 또한 더 나아가 당시 발전했던 수집 공간은 어떤 관점에서 미술을 다시 스펙터클로 만들어내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11	7월 16일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은 매너리즘 1527년 로마의 대약탈 사건 이후 많은 사람들이 르네상스를 넘어 매너리즘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시대로 넘어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술사가들은 이 시기를 후기 르네상스라고 부른다. 매너리즘이 기존 예술기를 모방한다고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 화가들의 삶을 다시 해석하는 과정이 놓여 있다는 점을 살펴보려고 한다.
12	7월 23일	르네상스 시대 이미지의 가치: 미술과 과학의 상호 기여 르네상스 시대는 다양한 가치가 상호 교환하며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의 관찰과 이야기는 세계에 대한 직관적 질문을 던지면서 동시에 세계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런 점은 이후 과학 혁명이라고 부르는 시대를 열어갔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미술과 과학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 2020년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계획

인간, 물질 그리고 변形 – 핀란드 디자인 10000년	특별전	12.21. ~ 04.05.
국보 보물전	기획전	04.13. ~ 06.14.
고대의 빛깔, 옷칠전	특별전	06.19. ~ 08.09.
중국 사천성 고대문명전	기획전	07.21. ~ 10.25.
빛으로 보는 우리 문화재	특별전	09.14 ~ 11.15.

\* 상기 일정은 박물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자 선인모양 주전자, 고려1실

## 그대, 누구신가

불로장생 꿈꾸며  
우화등선羽化登仙 소망하던  
고려 사람들  
청자로 주전자 빚어  
그 바람 담았으니  
  
봉황을 수놓은 보관 쓰고  
고이 날개 접어  
구름 위에 앉아  
천상의 복숭아 받쳐 든  
그대, 누구신가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万, 金聖鎮, 鄭鎮肅, 金榮秀, 俞相玉, 柳昌宗, 金正泰 회장을 거쳐 2017년 11월 申聖秀 회장이 취임했다.

會 副 理	長   申聖秀 會 長   尹在倫 朴殷寬 事 郭東錫 金錫洙 金信韓 南秀淨 朴善正 朴楨原 禹燦奎 尹碩敏 李玉卿 趙顯相 崔杜準 許榕秀 洪錫肇 洪政旭 裴基同
監 事 事 務 局 長	金教台 李教祥 李在範
會 副 理	
事 務 局 長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 원, 청룡 오십억 원, 백호 삼십억 원, 주작 십억 원, 현무 오억 원, 천마 일억 원, 금관 오천만 원, 은관 삼천만 원, 청자 일천만 원, 백자 오백만 원, 수정 이백만 원 이상으로 한다.

백호회원 삼성전자	金教台 金南延 金承謙 金信韓 金芝延 都炯泰 朴炳燁 朴容允 朴善正 宋秉峻 李教祥 張善霞 張仁宇 曹榮晙 崔正勳 SK에너지 尹碩敏 태영그룹 회장 전 성보문화재단 이사장 尹章燮 尹在倫 鄭溶鎮 趙顯相 千信一 許榕秀 洪錫肇 洪政旭
주자회원 金正泰 尹光子	하나금융그룹 회원
현무회원 朴殷寬	(주)시몬느 회장
천마회원 金錫洙 南秀淨 孫昌根 申聖秀 申憲澈 尹碩敏 尹章燮 尹在倫 鄭溶鎮 趙顯相 千信一 許榕秀 洪錫肇 洪政旭	동서식품(주) 회장 (주)썬앳푸드 사장 소장가 고려산업(주) 회장 SK에너지 태영그룹 회장 전 성보문화재단 이사장 尹章燮 尹在倫 郑溶镇 趙顯相 千信一 許榕秀 洪錫肇 洪政旭
금관회원 禹燦奎 姜德壽 庚 圓 權俊一,具在善	학고재 대표 전 (주)STX 회장 최철원 극락사 주지 Actium Group 부회장

삼정회계법인 대표 (주)동훈 대표이사 서릉지주(주) 대표이사 의장 대성산업주식회사 사장 金信韓 金芝延 都炯泰 朴炳燁 朴容允 朴善正 宋秉峻 李教祥 張善霞 張仁宇 曹榮晙 崔正勳 SK에너지 尹碩敏 태영그룹 회장 전 성보문화재단 이사장 尹章燮 尹在倫 郑溶镇 趙顯相 千信一 許榕秀 洪錫肇 洪政旭
金南延 (주)동훈 대표이사 서릉지주(주) 대표이사 의장 대성산업주식회사 사장 金信韓 金芝延 都炯泰 朴炳燁 朴容允 朴善正 宋秉峻 李教祥 張善霞 張仁宇 曹榮晙 崔正勳 SK에너지 尹碩敏 태영그룹 회장 전 성보문화재단 이사장 尹章燮 尹在倫 郑溶镇 趙顯相 千信一 許榕秀 洪錫肇 洪政旭
金承謙 金寧明 金英姬 金載勳 金鍾漢 柳芳熙 柳智勳 朴英柱 朴知原 徐載亮 成來恩 成弼鎬 宋 哲 宋 兑 辛炳讚 梁洪碩 尹賢慶 李明姬 李玉卿 李周成 李培昊 全裁範 鄭明勳 鄭鳳鳳 崔杜準 최철원 MIGHT&MAIN(주) (주)ALTO · (주)ALTEK 사장 Actium Group 부회장
삼정회계법인 대표 (주)동훈 대표이사 서릉지주(주) 대표이사 의장 대성산업주식회사 사장 金信韓 金芝延 都炯泰 朴炳燁 朴容允 朴善正 宋秉峻 李教祥 張善霞 張仁宇 曹榮晙 崔正勳 SK에너지 尹碩敏 태영그룹 회장 전 성보문화재단 이사장 尹章燮 尹在倫 郑溶镇 趙顯相 千信一 許榕秀 洪錫肇 洪政旭
金南延 (주)동훈 대표이사 서릉지주(주) 대표이사 의장 대성산업주식회사 사장 金信韓 金芝延 都炯泰 朴炳燁 朴容允 朴善正 宋秉峻 李教祥 張善霞 張仁宇 曹榮晙 崔正勳 SK에너지 尹碩敏 태영그룹 회장 전 성보문화재단 이사장 尹章燮 尹在倫 郑溶镇 趙顯相 千信一 許榕秀 洪錫肇 洪政旭

曉 懷 회원 은관회원	삼정회계법인 대표 (주)동훈 대표이사 서릉지주(주) 대표이사 의장 대성산업주식회사 사장 金信韓 金芝延 都炯泰 朴炳燁 朴容允 朴善正 宋秉峻 李教祥 張善霞 張仁宇 曹榮晙 崔正勳 SK에너지 尹碩敏 태영그룹 회장 전 성보문화재단 이사장 尹章燮 尹在倫 郑溶镇 趙顯相 千信一 許榕秀 洪錫肇 洪政旭
姜院基 金寧明 金英姬 金載勳 金鍾漢 柳芳熙 柳智勳 朴英柱 朴知原 徐載亮 成來恩 成弼鎬 宋 哲 宋 兑 辛炳讚 梁洪碩 尹賢慶 李明姬 李玉卿 李周成 李培昊 全裁範 鄭明勳 鄭鳳鳳 崔杜準 최철원 MIGHT&MAIN(주) (주)ALTO · (주)ALTEK 사장 Actium Group 부회장	오리온 베트남 법인 대표이사 (제)예올 이사장 회원 영풍제약 부사장 ㈜종합전기 대표 ㈜ 풍산주택 회장 ㈜SB Investment 사장 아성다이소 부사장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회장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영원무역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광성기업(주) 대표 성문출판사 대표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대신증권(주) 사장 민관 ㈜인팩 대표이사 한양자산관리주식회사 대표 ㈜슈페리어·슈페리어홀딩스(주) 사장 한세실업(주) 부회장 金知爰 李柱翰 洪進基 李常宰 GS건설 사장
金南延 (주)동훈 대표이사 서릉지주(주) 대표이사 의장 대성산업주식회사 사장 金信韓 金芝延 都炯泰 朴炳燁 朴容允 朴善正 宋秉峻 李教祥 張善霞 張仁宇 曹榮晙 崔正勳 SK에너지 尹碩敏 태영그룹 회장 전 성보문화재단 이사장 尹章燮 尹在倫 郑溶镇 趙顯相 千信一 許榕秀 洪錫肇 洪政旭	오리온 베트남 법인 대표이사 (제)예올 이사장 회원 영풍제약 부사장 ㈜종합전기 대표 ㈜ 풍산주택 회장 ㈜SB Investment 사장 아성다이소 부사장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회장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영원무역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광성기업(주) 대표 성문출판사 대표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대신증권(주) 사장 민관 ㈜인팩 대표이사 한양자산관리주식회사 대표 ㈜슈페리어·슈페리어홀딩스(주) 사장 한세실업(주) 부회장 金知爰 李柱翰 洪進基 李常宰 GS건설 사장
金南延 (주)동훈 대표이사 서릉지주(주) 대표이사 의장 대성산업주식회사 사장 金信韓 金芝延 都炯泰 朴炳燁 朴容允 朴善正 宋秉峻 李教祥 張善霞 張仁宇 曹榮晙 崔正勳 SK에너지 尹碩敏 태영그룹 회장 전 성보문화재단 이사장 尹章燮 尹在倫 郑溶镇 趙顯相 千信一 許榕秀 洪錫肇 洪政旭	오리온 베트남 법인 대표이사 (제)예올 이사장 회원 영풍제약 부사장 ㈜종합전기 대표 ㈜ 풍산주택 회장 ㈜SB Investment 사장 아성다이소 부사장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회장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영원무역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광성기업(주) 대표 성문출판사 대표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대신증권(주) 사장 민관 ㈜인팩 대표이사 한양자산관리주식회사 대표 ㈜슈페리어·슈페리어홀딩스(주) 사장 한세실업(주) 부회장 金知爰 李柱翰 洪進基 李常宰 GS건설 사장

청자회원 姜承模 高基瑛 具東輝 具本權 具本商 具本赫 具瑗姬 鞠賢永 權志憲 權宅煥 金建昊 金京姬 金寧慈 金東官 金東準 金斗植 金旼洙 金相潤 金性南 金性完 金世淵 金永斌 金榮秀 金英惠 金裕錫 金倫壽 金恩惠 金仁順 金載烈 金正宙 金宗學 金志泰 金兌炫 金澤辰 金賢銓 南兌勳 柳重熙 尹賢慶 李廷龍 林鍾勳 崔雄善 韓惠舟 金大煥 金益煥 金知爰 李柱翰 洪進基 李常宰 Actium Group 부회장	KP그룹 부회장 (주)금비 부회장 (주)LS 전무 LS-Nikko동계련주 사업전략부문장/상무 LIG 회장 예스코홀딩스 부사장 한성플랜지 이사 鞠賢永 세기상사(주) 기획팀장 아이에스지주 전무 신대양제지(주) 대표이사 삼양홀딩스 Global 성장PU 상무 (주)피어나조경 대표이사 (주)예올 명예이사장 한화 솔루션 부사장 기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삼익악기 사장 유리자산운용 경영기획실장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스무디킹 Global CEO 동일고무벨트(주) 부회장 김&장 법률사무소 한국청소년연구소 이사장 제일화재 이사장 (주)행남 대표이사 지리산 문학관관장 지알엠주식회사 상무 한익환서울아트박물관 관장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 (주)NXC 대표이사 서양화가 태아산업(주) 부사장 성신양회(주) 부회장 (주)엔씨소프트 대표 히든베이호텔 사장 국제약품 대표이사 사장 ㈜퓨처플레이 대표이사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동화약품 상무 가나아트갤러리 대표이사 한미헬스케어(주) 대표이사 (주)인팩 대표이사 진양자산관리주식회사 대표 ㈜슈페리어·슈페리어홀딩스(주) 사장 한세실업(주) 부회장 金大煥 金裕錫 金賢銓 南兌勳 柳重熙 尹賢慶 李廷龍 林鍾勳 崔雄善 韓惠舟 金大煥 金益煥 金知爰 李柱翰 洪進基 李常宰 Actium Group 부회장	朴俊泳 朴海春 方正梧 裴允植 白晋宇 徐東姪 薛允碩 한성플랜지 이사 鞠賢永 세기상사(주) 기획팀장 아이에스지주 전무 신대양제지(주) 대표이사 삼양홀딩스 Global 성장PU 상무 (주)피어나조경 대표이사 (주)예올 명예이사장 한화 솔루션 부사장 기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삼익악기 사장 유리자산운용 경영기획실장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스무디킹 Global CEO 동일고무벨트(주) 부회장 尹普鉉 尹勝鉉 尹楨善 李甲宰 李圭鎬 李起雄 李萬圭 李美淑 李善貞 李秀卿 李承勇 李英純 李鈴子 李容濤 李宇成 李宇鉉 李雲卿 李胤基 李仁洙 李宰旭 李濬宇 李芝衡 李哲雨 李學俊 李海珍 張同鎮 張升準 朴廷彬 朴正遠 朴俊泳 朴海春 方正梧 裴允植 白晋宇 徐东姪 薛允硕 한성플랜지 이사 鞠贤永 세기상사(주) 기획팀장 아이에스지주 전무 신대양제지(주) 대표이사 삼양홀딩스 Global 성장PU 상무 (주)피어나조경 대표이사 (주)예올 명예이사장 한화 솔루션 부사장 기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삼익악기 사장 유리자산운용 경영기획실장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스무디킹 Global CEO 동일고무벨트(주) 부회장 尹普鉉 尹勝鉉 尹楨善 李甲宰 李圭鎬 李起雄 李萬圭 李美淑 李善貞 李秀卿 李承勇 李英純 李鈴子 李容濤 李宇成 李宇鉉 李雲卿 李胤基 李仁洙 李宰旭 李濬宇 李芝衡 李哲雨 李學俊 李海珍 張同鎮 張升準 朴廷彬 朴正遠 朴俊泳 朴海春 方正梧 裴允植 白晋宇 徐东姪 薛允硕 한성플랜지 이사 鞠贤永 세기상사(주) 기획팀장 아이에스지주 전무 신대양제지(주) 대표이사 삼양홀딩스 Global 성장PU 상무 (주)피어나조경 대표이사 (주)예올 명예이사장 한화 솔루션 부사장 기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삼익악기 사장 유리자산운용 경영기획실장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스무디킹 Global CEO 동일고무벨트(주) 부회장 尹普鉉 尹勝鉉 尹楨善 李甲宰 李圭鎬 李起雄 李萬圭 李美淑 李善貞 李秀卿 李承勇 李英純 李鈴子 李容濤 李宇成 李宇鉉 李雲卿 李胤基 李仁洙 李宰旭 李濬宇 李芝衡 李哲雨 李學俊 李海珍 張同鎮 張升準 朴廷彬 朴正遠 朴俊泳 朴海春 方正梧 裴允植 白晋宇 徐东姪 薛允硕 한성플랜지 이사 鞠贤永 세기상사(주) 기획팀장 아이에스지주 전무 신대양제지(주) 대표이사 삼양홀딩스 Global 성장PU 상무 (주)피어나조경 대표이사 (주)예올 명예이사장 한화 솔루션 부사장 기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삼익악기 사장 유리자산운용 경영기획실장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스무디킹 Global CEO 동일고무벨트(주) 부회장 尹普鉉 尹勝鉉 尹楨善 李甲宰 李圭鎬 李起雄 李萬圭 李美淑 李善貞 李秀卿 李承勇 李英純 李鈴子 李容濤 李宇成 李宇鉉 李雲卿 李胤基 李仁洙 李宰旭 李濬宇 李芝衡 李哲雨 李學俊 李海珍 張同鎮 張升準 朴廷彬 朴正遠 朴俊泳 朴海春 方正梧 裴允植 白晋宇 徐东姪 薛允硕 한성플랜지 이사 鞠贤永 세기상사(주) 기획팀장 아이에스지주 전무 신대양제지(주) 대표이사 삼양홀딩스 Global 성장PU 상무 (주)피어나조경 대표이사 (주)예올 명예이사장 한화 솔루션 부사장 기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삼익악기 사장 유리자산운용 경영기획실장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스무디킹 Global CEO 동일고무벨트(주) 부회장 尹普鉉 尹勝鉉 尹楨善 李甲宰 李圭鎬 李起雄 李萬圭 李美淑 李善貞 李秀卿 李承勇 李英純 李鈴子 李容濤 李宇成 李宇鉉 李雲卿 李胤基 李仁洙 李宰旭 李濬宇 李芝衡 李哲雨 李學俊 李海珍 張同鎮 張升準 朴廷彬 朴正遠 朴俊泳 朴海春 方正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04383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회 137 Seobinggo-ro, Yongsan-gu, Seoul, 04383, Korea  
전화 (02)2077-9790~3 전자우편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www.fnmk.org